



## 9월의 기도

1. 가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선선한 가을바람처럼 우리의 말과 행동이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게 하시고, 사랑을 나누는 넉넉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2. DCEM총재 조용기 목사님 천국 가신지 벌써 5년이 지나면서 더욱 목사님이 그리울 때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조용기 목사님의 가르침에 따라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케 되는 삼중 축복의 은혜를 받길 원합니다. 또한 세계 선교에 대한 긴장의 끈을 놓지 말게 하시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저희 DCEM이 되게 하소서. 특히 4차원의 영성으로 생각을 변화시키고, 거룩한 꿈을 꾸고, 믿음으로 꿈을 붙잡고, 입술로 선포하며 나아가 세상을 바꾸도록 만드는 귀한 사명을 실천해 나가는 DCEM되게 하시옵소서.

3. 폭우로 산사태 피해를 입은 거제지역의 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나라 전통의 추석 명절에 고향이나 가족 상봉, 이동하는 성도님들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가족 간의 예배와 모임으로 화합하며 온 가족이 하나님 품에서 은혜와 축복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4. 이웃을 사랑하며 세상을 빛나게 하는 선교사들의 사명을 강화하시고 선교사들과 그들의 가족들의 신체적, 영적인 건강을 보호하여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 조용기 목사 특별 메시지

##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성

야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야훼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시편 127:1)

사람들은 집을 지은 후 그 집을 지키기 위해서 주위에 성을 쌓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집 주위에 경제적인 성, 사회적인 지위의 성, 환경의 성과 같은 인생의 성을 쌓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침 일찍 일어나고 저녁 늦게 누우며 아무리 열심히 수고를 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의 날개 밑에 거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쌓은 성은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람이 성을 쌓을 수는 있지만 자기 힘으로 그 성을 지킬 수는 없습니다.

우리 육신의 성도 아무리 영양 섭취에 유의하고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할지라도 길어야 70년, 강건하다면 80년을 기한으로 무너지고 맙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금세뿐만 아니라 내세에서 우리의 성을 지켜 주시는 분을 우리의 삶 가운데 모셔 들여야 합니다. 그 분은 누구일까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생애 속에 모셔들이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금세의 성뿐만 아니라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하늘나라 성까지도 지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성을 지켜 주시는 주님을 구주로 모시고 의지함으로 금세에도 튼튼한 성에서 살 뿐 아니라 하늘나라의 새 예루살렘 성도 소유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DCEM 뉴스레터 구독신청 안내

DCEM에서는 故 조용기 목사님의 선교 사역의 발자취와 새로운 선교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매월 정기 간행물 '뉴스레터(DCEM NewsLetter)'를 제작해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DCEM을 위하여 물질과 기도로 후원하기 원하시는 분 또는 정기간행물을 무료로 받아보시기 원하시는 분께서는 저희 DCEM에 연락주시면 조용기 목사님의 국내외 사역을 소개하고 있는 뉴스레터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TEL : (02) 6181-5064 / dcem@davidcho.com

September News Letter

DCEM

David Cho Evangelistic Mission

## 되돌아 보는 DCEM 해외성회

### 〈 2008 일본 아키타성회 〉



아름다운 자연의 보고이며 일본 동북 3현 중 하나로 손꼽히는 대표도시 아키타에 희망과 축복의 메시지가 울려 퍼졌던 '조용기 목사 초청 2008 일본 동북복음화대성회'를 회고해 보고자 한다. 일본 동북복음화대성회 준비위원회가 주최하고 DCEM의 주관 속에 9월 23일 개최된 조용기 목사 초청 일본 '동북복음화대성회'는 성령의 충만함 속에 열린 기적과 사랑이 가득한 성회였다. 아키타에서 가장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아키타현민회관에서 총 4시간에 걸쳐 진행된 본 성회는 이제껏 아키타에서 열린 개신교 집회 중 가장 큰 성회로 기록되기도 했다.

이 성회는 동북지역 6개 현에 위치한 루터교, 장로교, 순복음, 갈보리채플 소속 50여 교회가 하나로 결집해 '대수확의 시작'이라는

슬로건에 걸맞게 성회를 준비했다. 동북복음화대성회를 위해 뜻을 같이한 교회의 성도수를 모두 합하면 700여 명에 지나지 않지만, 성회 당일에는 무려 2천여 명의 사람들이 아키타현민회관에 모여 성회를 이뤘다. 마침 성회 개최일이 공휴일이자 추수의 계절을 알리는 추분이어서 그러했는지 많은 영혼의 결실을 얻을 수 있어서 더욱 특별한 성회가 되었다.

성도들의 환영 속에 단 위에선 조용기 목사는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의 말씀을 근거로 '빌립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전했다. DCEM 사무총장 시가끼 시게마사 목사의 통역으로 선포된 조용기 목사의 메시지는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이 그대로 함축된 설교였다.



한편 이 성회는 무려 300여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결신하는 기적을 낳았다. 일본 동북교회 6개 현에 속한 교회들의 전체 성도수를 합하면 700명에 이르는데 이것을 감안할 때, 2천 여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성회에 참석하고 300여 명이 결신한 것을 실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조용기 목사는 '동북복음화대성회'에 시작부터 깊은 관심과 애착을 보였다. 일본 1천만 구령을 위하여 1977년부터 31년동안 일본 복음화에 힘써온 조용기 목사는 이 성회를 통해 일본 동북지역이 성령의 불로 활활 타오르기를 소망했다. 그래서 성회에 앞서 열린 조찬회에 참석해 일본 목회자 20여 명을 일일이 안수하고 축복하며 기도했다.

'2008 동북복음화대성회'는 일본 일천만 구령을 향해 크게 두 가지의 과업을 이루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됐다. 첫째는 동북지역의 교회들과 목회자들 그리고 성도들의 연합을 이끌어 냈다는 것이며, 둘째는 순복음교단을 중심으로 성회를 개최한 것이 아니라 일본인 목회자들이 직접 교파를 초월해 성령으로 하나되어 성회를 준비해 1천만 구령을 앞당기고자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오랜 기독교 역사를 가지고 있으나 성령 운동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깊은 체험이 부족한 일본에서 이 성회는 50여 교회들이 성령의 충만함 속에 뜨겁게 기도하며 아키타 지역에 희망의 메시지가 울려 퍼지길 간절히 기도한 성회였다.

## 지난 한 달 동안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여의도순복음교회, 순복음동경교회, 시가끼 시게마사 목사님께서 후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김태승, 정경자, 최인철, 함석숙 님께서 후원해 주셨으며 별칭 및 익명으로 후원해 주신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온라인 후원을 위한 계좌안내 :

예금주 : 디시이엠

계좌번호 181-22-02127-7 혹은

256-890020-00804 (하나은행)

## 자랑스러운 신앙생활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23절)

### 2.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가 하나님께 짧게 혹은 길게 기도할지라도 주님께서는 들어주십니다. 회개의 기도와 탕자의 고백처럼 우리가 꼭 해야 할 기도가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용서하고 받아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받아주십니다.

주기도문은 우리의 모범적인 기도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잡하고 어지럽게 기도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필요를 아뢰기를 원하십니다. 시편 146편 3~5절은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야곱의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으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다윗도 “너희는 야훼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11절에서 주님은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십니다. 언제든 하나님께 나아가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고 평안과 치유를 허락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며 인생의 영원한 투자입니다.

### 3.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는 쓴 물을 달게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때 마라에서 쓴 물을 만났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뭇가지를 던지자 물이 달아졌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도 광야와 같아서 크고 작은 일에 쓴 물을 만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십자가를 받아들이면 쓴 물이 달아집니다.

로마서 8장 1~2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으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한다고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4장 6~7절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도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감사를 하면 행복이 들어오지만 불평과 원망을 하면 행복이 나갑니다. 아무리 가진 것이 많고 배운 것이 많아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녀에게도 먼저 감사의 언어를 가르쳐야 합니다.

### 4.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심

우리는 꿈을 변화시켜 믿음의 옷을 입고 창조적인 선언을 하며 살아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 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히브리서 10장 38~39절은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잃어도 꿈과 희망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을 것이라는 꿈과 희망이 있어야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꿈을 가질 수 있고, 기도로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을 기뻐하고 마귀를 쫓아내며 행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인생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고, 꿈과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 마태복음 24



예물보다 용서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을 들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 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한 톨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마5:23~26)”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물드리는 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형제 자매가 서로 화목하는 것을 제일 기뻐하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부모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부모에게 맛있는 음식을 가져오고 좋은 의복을 사오는 것보다 오히려 형제간에 화목하고 사이 좋게 지내는 것이 더 기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안에서 형제된 우리 성도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예물을 드리고 경배해도 서로 물고 찢고 싸우면 하나님께서는 그 예물을 싫어하십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용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음속에서 ‘너 어디 두고보자’ 하고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한 가정에서도 남편과 아내가 물고 찢고 싸우면 그 다음에는 기도가 막혀버립니다.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용서해주고 화목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도 우리끼리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받아 주시지 않습니다. 예배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입술로 찬송의 예물을 드리고 기도로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찬송과 기도로 예물을 드릴 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우리의 심령이 얼마나 메말라지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 우리의 찬송과 기도가 열납되기 위해서는 서로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하고 화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끼리 용서하고 화해하는 것을 제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하면 성령이 들어오셔서 하나 되게하시고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예물을 받으십니다. 주님께서는 문제가 생기면 법정으로 가기 전에 서로 대화해서 화해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쳐



주시고자 한 것입니다. 내가 잘못했을 때 고소를 당하고 재판을 받으면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감옥에 들어가기보다는 미리 화해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화해를 하면 크게 확대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내가 형제와 불화하여 심령으로 화해하지 않으면 내 양심에 고소를 당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내 심령은 고통의 감옥 속에 갇혀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화목하면 가장 좋다고 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예물도, 기도도, 찬송도, 기쁘게 받으신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날마다 서로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회개하고 형제와 화목하면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기쁨이 넘쳐나고 기도응답의 축복이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해 질 것입니다.

\*영산강해는 조용기목사님의 마태복음 강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서 요약 발췌하였습니다.

# Jesus 2026 in TOKYO Music Festival

**일시** 2026년 9월 23일(수·공휴일)  
**개장** 14:30 / **개연** 15:00  
 1부 15:00 ~ 음악제 / 2부 16:30 ~ 18:00 축복성회

**장소** 신주쿠 문화센터 대홀  
 〒160-0022 6-14-1 Shinjuku, Shinjuku-ku, Tokyo-to

**강사** 이영훈 목사  
(여의도순복음교회 담임목사)

오오카와 쓰구미치 목사  
(아미토 갈보리산 재물 감독목사)

이영훈 목사 오오카와 쓰구미치 목사

**Jesus Music Festival 2026 in Tokyo** **특설 페이지**  
<https://jesusmusicfestival.jp/kr/>

주관: DCEM | 주최: 순복음일본총회 | 후원: JMF실행위원회, 순복음통경교회